

## 보도자료



(주소) 16488 /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8574 (팩스) 031-231-8588

배 포 일 202	2025.7.28	쪽수	사진	기관 도메인주소	자료 문의
보 도 일	2025.7.29				
반려견과 걷고 쓰레기 줍고 경기옛길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실천		1	1	www.ggcf.kr/	부서 : 문화유산팀 담당 : 이소정 전화 : 031-231-8574

## 반려견과 걷고 쓰레기 줍고... 경기옛길서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실천

- ▶ 7월 26일 영남 구성현길서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1회차 행사 성료
- ▶ 반려동물 예절 교육부터 플로깅, 기후행동 기회소득까지 의미 더해
- ▶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문화 조성 계기 마련

경기문화재단 경기역사문화유산원이 주최한 시민참여형 환경정화 프로그램 '2025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1회차 행사가 지난 26일 용인시 탄천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행사에는 반려견과 함께 도민 35여명이 참가해 영남길 제3길 구성현길 구간을 따라 걷고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을 진행하며,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 보호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용인 지역에서 활동 중인 반려견 순찰대도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기후행동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여름 저녁 시간대를 활용해 야외 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매너 교육, 참가자 기념 촬영, 기념품 배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약 2.8km 구간을 걸으며 자연 속에서 쓰레기를 줍는 동시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 실천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시스템이 처음 도입됐다. 참가자들은 활동 종료 후 현장에서 안 내된 QR코드를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인증해 1인당 2,000원의 기회소득을 적립받았다. 이는 도민의 기후행동을 실질적인 보상과 연결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향후 재단내 다양한 환경행사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반려견과 산책하면서 환경도 지키는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서는 "환경을 위한 행동이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니 동기부여가 된다"며 높은 만족도를 드러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행사는 도민이 주체가 되어 참여한 생활 속 기후 행동 사례로, 앞으로도 경기옛길을 활용한 다양한 시민참여형 환경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기옛길이 반려동물과 함께 걷고 환경을 생각하는 실천의 공간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2회차 행사는 오는 8월 9일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앞으로도 반려가족을 포함한 도민이 일상에서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경기옛길 활용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붙임] '2025 경기옛길 더하기, 환경 투개더' 행사 사진

